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0
FOR PEACE & PROSPERITY

코로나19 팬데믹과 여성의 일상 안보

The COVID-19 Pandemic and
Women's Everyday Security

November 5 - 7,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Contents

목차

- 05 I. 세션운영 개요
- 09 II. 개회사
민무숙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 13 III. 기조발표 | COVID-19 and Women, Peace and Security
SILBERT Carla / Regional Advisor a.i., Women, Peace and Security, UN Women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칼라 실버트 / 유엔여성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여성, 평화 및 안보 자문관)
- 21 IV. 발표 | 코로나 19와 여성의 목소리
윤정숙 / 녹색연합 공동대표
- 27 V. 발표 | 코로나 위기의 여성정신건강
곽영숙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33 VI. 토론
좌 장 서영표 / 제주대학교 교수
토론자1 박기남 / 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
토론자2 이승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토론자3 황영주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코로나19 팬데믹과 여성의 일상 안보

The COVID-19 Pandemic and Women's Everyday Security

이 세션은 전 세계적 코로나(COVID-19) 팬데믹 환경에서 여성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인간안보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기획하였다.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글로벌 환경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한 국가만의 일이 될 수 없다. 개별 국가들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국가체제와 기존의 공적 질서에서 여성에 대한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영역에서는 여성노동의 증가, 일자리영역에서 여성 우선해고, 여성폭력의 증가 등 여성에 대한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각 영역에서 여성의 소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일상생활에서의 여성안보 방안과 이를 위한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ession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global COVID-19 pandemic environment on women's everyday lives, and to find ways to maintain human security from a women's perspective.

In a global environment where national boundaries are blurring, the COVID-19 pandemic cannot be the respective country's problem. Individual countries are establishing countermeasures for the safety of their own people, but women are often alienated from the national system and the existing public order.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increasing women's care loads in the care sector, prioritizing dismissal of women in the job sector, and increasing gender-based violence are threatening the safety of everyday lives of women.

We will examine women's alienation in each area in detail, discuss measures for women's security in everyday life, and seek for cooperation and solidarity among countries.



SEO Young-pyo



SILBERT Carla



YOON Jungsook



KWAK Youngsook



PARK Kinam



LEE Seung-a



HOANG Young-ju



좌장 서영표 제주대학교 교수
발표 칼라 실버트 유엔여성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여성, 평화 및 안보 자문관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곽영숙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토론 박기남 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황영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Moderator SEO Young-pyo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Keynote SILBERT Carla Regional Advisor a.i., Women, Peace and Security, UN Women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Speaker YOON Jungsook Co-Representative, Green Korea United
KWAK Youngsook Professor Emeritus, College of Medicine, Jeju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 PARK Kinam Former Director, Gangwondo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LEE Seung-a Council Member of Health Welfare & Security Committe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HOANG Young-ju Professor,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코로나19 팬데믹과 여성의 일상 안보

- **일 시** 2020년 11월 7일(토) 17:10 ~ 18:30
- **장 소** 롯데호텔 제주 크리스탈볼룸C
- **주 제** 코로나19 팬데믹과 여성의 일상 안보
- **공동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주요내용**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이 여성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인간안보 유지 방안 모색

※ 제15회 제주포럼의 모든 세션은  제주포럼 유튜브에서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 세션운영 시간표

시간	내용
16:30~17:10	• 안내 및 착석, 시작고지
17:10~17:15	사회 : 전문사회자(제주포럼 사무국) • 개회사(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 • 세션내용 및 연사소개
17:15~17:45	좌장 : 서영표(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기조발표 : 칼라 실버트(유엔여성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 평화 및 안보 자문관) - 코로나19와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 • 발표1 :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 코로나19 앞에선 여성의 목소리 • 발표2 : 곽영숙(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코로나 위기와 여성 정신건강
17:45~18:15	• 토론1 : 박기남(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 • 토론2 : 이승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토론3 : 황영주(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18:15~18:25	• Q & A
18:25~18:30	• 폐회



민 무 속
MIN Moosuk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President,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속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과 여성가족청소녀과가 공동으로 마련한 본 세션을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전 세계적 코로나(COVID-19) 팬데믹 환경에서 여성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인간안보 유지를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글로벌 환경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한 국가만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개별 국가들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국가체제와 기존의 공적 질서에서 여성에 대한 소외가 발생하고 있어 국제적 평화와 안보는 이제 젠더평등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봄영역에서는 여성노동의 증가, 일자리영역에서 여성 우선해고, 여성폭력의 증가 등에 대한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K 방역의 찬사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묻혀진 여성들의 일상이 도전받고 있고 COVID-19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와 여성에게 미치는 부담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구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COVID-19로 인한 여성의 소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일상여성 생활에서의 여성안보와 국가 간의 협력 및 연대, 그리고 지역에서 필요한 여성안보를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조발표를 맡아주신 칼라 실버트 유엔여성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 평화 및 안보 자문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좌장을 맡아주실 제주대학교 서영표 교수님, 발표를 해주실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님, 광영숙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님, 토론을 해주실 박기남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전 원장님,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 황영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의 일상적인 안전을 기본으로 전 지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 여성들이 함께 연대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7.

서 영 표

SEO Young-pyo

제주대학교 교수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서영표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사학을 공부한 후 영국의 에식스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일했다. 2012년부터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박사학위의 주제는 영국의 신좌파와 지역정치로 “급진적 런던광역협의회 (1981-6)에 대한 검토와 영국 신좌파 운동에 가지는 함의”라는 제목으로 제출되었다. 그의 연구관심은 영국 신좌파운동과 지역정치에서 시작되었지만 학위논문을 완성한 후 환경 사회학으로 발전되었다. 환경사회학, 도시사회학, 사회이론, 정치사회학, 영국 정치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Prof. Young-Pyo Seo studied Korean Histor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n received his MA and PhD degrees in sociology from the University of Essex, UK. He had worked for the Democracy Institute of the Sungkonghoe University as a research professor from 2008-2011. Since 2012 he has been teaching at the Sociology Department of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title of PhD thesis was “The Theoretical Reflections on the Radical Greater London Council (1981-6) and Its Implication for the British New Left.” His research interests began with British new left movement and local politics, and, after finishing the thesis, developed into environmental sociology. He published many academic papers on environmental sociology, urban sociology, social theory, political sociology, and British politics.

III. 기조발표

COVID-19 and Women, Peace and Security

SILBERT Carla

Regional Advisor a.i., Women, Peace and Security, UN
Women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칼라 실버트

유엔여성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여성,
평화 및 안보 자문관

SILBERT Carla
칼라 실버트

Regional Advisor a.i., Women, Peace and Security,
UN Women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유엔여성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여성, 평화 및 안보 자문관



칼라 실버트는 유엔여성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지역 자문관이자 유엔여성기구 필리핀 사무소의 책임자이다. 그녀는 분쟁 예방, 여성에 대한 국가 행동계획, 평화와 안보, 전환기 정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포용적 평화 프로세스 등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

칼라는 유엔여성 캄보디아 성평등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여성의 정의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재 성폭력과 성차별 기반 폭력의 문제를 다루는 JRR / UN Women SGBV Justice Experts Roster의 회원이기도 하다. 또한 그녀는 르완다 유엔국제형사재판소와 호주 빅토리아 검찰청 검사로도 일했으며, 멜버른대학교에서 공공 및 국제법 석사 학위를 받았다.

Carla Silbert is Regional Advisor a.i., Women, Peace and Security for UN Women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and OIC for UN Women Philippines. Her work focuses on conflict prevention, National Action Plans on Women, Peace and Security, transitional justice, preventing violent extremism, and inclusive peace processes.

Previously, Carla worked as a Gender Equality Officer with UN Women Cambodia, where she focused on enhancing women's access to justice. Carla is a member of the JRR/UN Women SGBV Justice Experts Roster, and has previously worked at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and as a prosecuting lawyer for the Office of Public Prosecutions in Victoria, Australia. She holds a Masters of Public and International Law from the University of Melbourne.

WOMEN, PEACE & SECURITY

WOMEN, PEACE & SECURITY

Leveraging 20 years of
experience to respond to
COVID-19



Carla Silbert, Regional Advisor on WPS a.i
UN Women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WOMEN
PEACE
SECURITY

An Agenda that links **gender equality**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recognizes women as key to **resolving conflict** and **building peace**.



Building Blocks



1. Participation

3. Prevention

2. Protection

4. Relief & Recovery



WPS Pillars



WPS & COVID-19



[COVID-19 is] a human crisis that is fast becoming a human rights crisis. We see the disproportionate effects on certain communities, the rise of hate speech, the targeting of vulnerable groups, and the risks of heavy-handed security responses undermining the health response.

UN Secretary-General | Human Rights and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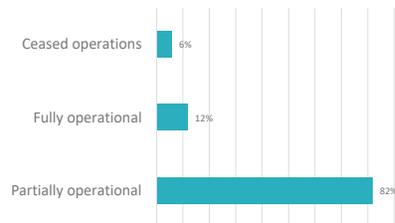
24%
Average number of women in national-level decision-making bo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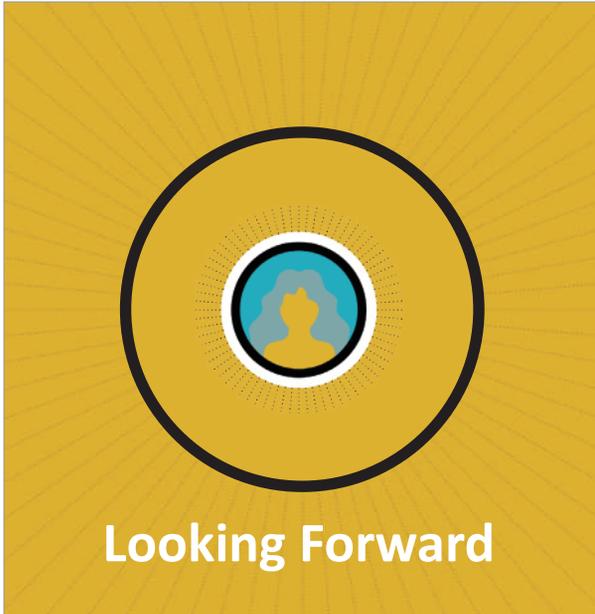
VS

70%
Average number of women in the global health and social care workforce
Care International, June 2020



Impact of COVID-19 on operations of women CSOs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COVID-19 decision-making bo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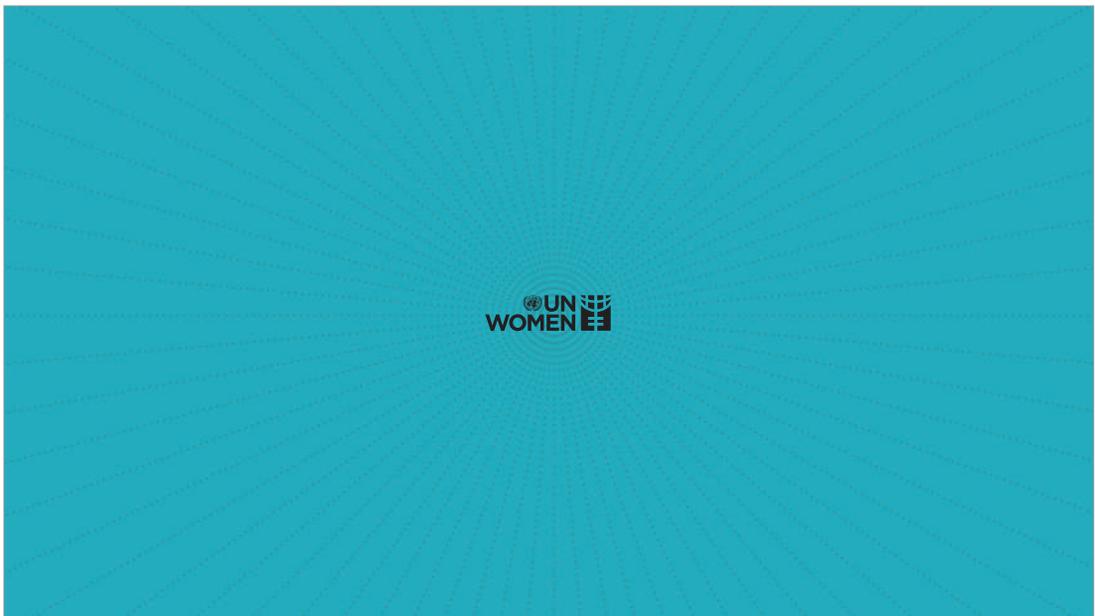
Provide for women civil society's oversight of COVID-19 related emergency powers and security responses.

Leverage women's peacebuilding expertise to repair social cohesion and build resilience.

Support to women civil society, as well as open the space for their civic engagement.

Undertake gender analysis of recovery efforts to ensure they are gender-responsive.

Disaggregate COVID-19 data by gender.



IV. 발표

코로나 19와 여성의 목소리

윤 정 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0
FOR PEACE & PROSPERITY

윤 정 숙
YOON Jungsook

녹색연합 공동대표
Co-Representative, Green Korea United



윤정숙 대표는 1987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을 시작으로 30-40대에 여성운동을 하였다. 여성노동과 젠더정책 및 예산평가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으며, 성차별적 노동시장 그리고 성인지적 정책과 예산이 주요 관심분야였다. 이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1% 나눔운동’을 통한 시민참여형 나눔운동을 하였다. 현재는 녹색연합 공동대표로 환경과 생태운동을 하고 있다.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위한 사회시스템과 가치의 변화가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며, 특별히 기후위기와 에코페미니즘, 민관환경거버넌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YOON Jungsook started with the ‘Korean WomenLink’ activity in 1987 and devoted a women’s movement in her 30s and 40s. She focused on women’s labor, gender policy, and budget assessment, and her main interests were gender-discriminated labor market and gender-sensitive policy and budget.

Afterwards, as a standing director of the “Beautiful Foundation,” she conducted a citizen-participating sharing movement through the “1% Sharing Movement”. Currently, she is engaged in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movements as a joint representative of the Green Korea United. She believe that the change of social system and values for the transition from industrial civilization to ecological civilization is an important task, and In particular, she is very active in the areas of climate crisis, ecofeminism, and public-private environmental governance.

코로나 19와 여성의 목소리

이 발표는 코로나 19 위기 속의 '여성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그동안 모범적인 'K-방역'의 자부심과 찬사의 뒤에 가려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묻혀진 여성들의 힘들고 위태로운 일상을 드러낼 것이며,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여성들의 의제와 제안을 말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성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청은 앞으로 '뉴노멀'을 구성하는 데 중대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들은 더 많은 위험에 처해 있다'(OHCHR, 폐기 획스국장). '코로나 영향이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으며, 기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UN Women 보고서). 이러한 시각은 국내외적으로 공통된 분석이다. 코로나 재난으로 공보육과 교육체계가 거의 멈춘 지금, 여성들이 담당한 가정내 돌봄은 '독박돌봄' '돌봄번아웃'으로 불릴 만큼 고되고 힘든 노동이 되었다. 유아원, 요양원과 병원등 공적 보건 및 돌봄노동의 70% 이상이 여성들이며 그 노동은 저평가되었으며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일시휴직자 증가와 취업자 감소율은 여성이 훨씬 많다는 것등 팬데믹으로 악화된 성차별 현실은 여러 지표로 넘치고 있다.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여성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중앙 7.4)라는 언론기사는 비정규직, 시간제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상황을 보여준다. ILO는 '그동안의 성평등 성과가 코로나 19에 무너질 위기'라고 경고한다. 또한 'The Shadow Pandemic'으로 명명하는 가정폭력 증가로 세계 각국의 여성긴급 상담은 30-60% 폭증했고, 국내는 디지털 성범죄도 증가했다. 한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학생들이 떠난 공간을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여성과 아이들에게 피난처로 제공해왔다(BBC 9.14)는 보도에서는 위기 속의 시민사회의 연대를 볼 수 있다.

팬데믹으로 성평등이 몇 십년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은 '팬데믹 위기가 성평등의 위기'임은 분명히 표현해준다. 이제 여성들은 팬데믹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사회를 전망하고 제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성평등포럼은 <성평등과 코로나 19>를, 여성단체들은 <코로나 19와 젠더> <코로나 19와 돌봄위기>등 여러 공론장을 열어 위기진단 및 대안기획에 적극 토론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뉴노멀'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동안 진전해온 성평등의 제도와 관행이 더 이상 균열하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 위기를 넘어가는 방향과 방식은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 모습을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 기업은 여성우선해고 및 모성보호 등에서 성차별적인 관행으로 후퇴하지 않아야 하며,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는 위험에 대응하는 데에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위한 공동체적 지지와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여성의 삶이 더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혁신 정책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모든 과정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가 필수적 전제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배제된다면 회복속도는 느려질 것이고, 또한 회복에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 분명하다. 빠르고 위협적으로 우리의 삶에 침입해들어 온 팬데믹은 우리 삶과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도록 촉구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들 삶에 어떤 가치가 우선이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다른 생명들이 서로 돌보며 공존하는 생태적 관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돌

아보기 시작해야 한다. 팬데믹 위기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돌봄노동의 가치와 절실함을 알게 되었다. 교육과 양육, 건강과 보건, 안전과 요양 등 우리 대부분의 일상에서 돌봄은 피할 수도, 미룰 수도, 포기할 수 없는 인간 삶의 필수노동(Essential Work)임을 확인했다. 돌봄노동은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때론 자신들의 건강 위협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인간의 일상과 존엄을 유지하는 모든 돌봄노동의 재평가, 공적 돌봄 체계의 근본적인 재구조화를 시작해야 한다. 여성의 일 혹은 단순노동으로 낮게 평가했던, 더구나 비대면, 디지털서비스가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노동은 역설적으로 팬데믹을 통해 필수노동으로 떠올랐다. 지금 여성들은 ‘돌봄뉴딜’은 왜 없느냐고 질문하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돌봄경제, 돌봄 공공성 강화의 방향과 정책은 왜 보이지 않는지 묻는다. 앞으로 돌봄노동의 공공성에 대해 여성들은 질문과 요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19-와 혁신적 돌봄경제’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수준을 가능할 핵심 영역이자 ‘뉴노멀’이라는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는 돌봄의 가치가 공적인 사회적 규범이 되고, 따라서 누구도 예외 없는 모두의 시민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실, 누구도 코로나 19가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단언하기 어렵다. 끝나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또 이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도 안 될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일상안보는 물론 모든 생명, 생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전환적 기획을 토론하고 있다. 핵심은 ‘돌봄가치의 공공화’와 함께 ‘생태적 전환’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생태적 사건’이라 한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가 팬데믹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대로 기후위기가 진행되면 또 다른 팬데믹은 물론, 되돌리기 어려운 파국이 올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도 반박하기 어렵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존의 개발과 성장 중심의 사회, 경제구조를 돌아보고 바꾸어야만 또다른 팬데믹을 막을 수 있으며, 심각해진 여성 차별적 노동과 ‘돌봄번아웃’ 일상이 다시 재현하지 않을 것이다. 잘 알려진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Never waste a good crisis) 말로 맺으려 한다. 팬데믹 위기는 전환의 새로운 길로 가야한다는 메시지이다. 여성의 목소리는 전환을 요청하는 목소리이다. 인간과 다른 모든 생명, 생태들이 스스로 삶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누구라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삶을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많은 여성들은 지역에서, 일상 안에서 크고 작은 대안적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실천이 곳곳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게 될 것이다. 뉴노멀의 기획에 이미 시작한 여성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경청되고, 참여를 통해 통합되어야 한다.

V. 발표

코로나 위기의 여성정신건강

곽영숙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0
FOR PEACE & PROSPERITY

곽 영 숙

KWAK Youngsook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College of Medicine,
Jeju National University



곽영숙교수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을 전공한 정신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여성정신건강,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임상 및 학술 활동과 함께 사회 활동에 기여해 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아정신과장, 제주 의대 교수를 거치며 국립자폐증진료소, 제주시정신건강센터를 개설하고 학교정신건강사업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한국여성정신의학회 회장 등의 학회 활동을 통해 탈북여성 지원 사업,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성명서를 내는 등 폭력과 자살예방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왔고 법조계 인사들과 아동권익 보호학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으로서 아동청소년 권익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이바지한 업적으로 2012년 보건복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학술 업적으로 2019년 소천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Professor Kwak as a child psychiatrist has been active in clinical, academic and social activity in the field of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woman mental health and community mental health. When she was in charge of the director of Department of Child Psychiatry of National Mental Health Center and professor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he developed National Autism Center, Jeju Mental Health Center and had laid foundation of school mental health services to promote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s the President of Korea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President of Korean Academy of Woman Psychiatry she implemented services supporting North Korean woman defectors, movements for “Society without Violence” and consistently has spoken out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suicide. Collaborating with people in Family court including judges, she launched Korean Society for Child Rights Advocacy in 2017

코로나 위기의 여성정신건강

Woman Mental Health in the Crisis of Covid-19

코로나(COVID-19) 팬데믹 환경은 지구적 보건위기를 초래하였다. 감염의 위험이 장기화 되며 초기에 시작된 신체 건강의 위기에서 이제는 정신건강의 주요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심리적 안녕과 좋은 정신건강은 인권의 기본적 요소이며 한 사회의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시점에 정신건강을 위한 국가차원의 행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영향 뿐 아니라 신체적 고립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COVID-19) 팬데믹이 여성의 삶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여성의 정신건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관점에서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 정신건강은 여성과 정신건강 각각이 가진 스티그마로 인해 전문 영역에서 뿐 아니라 국가정책에서도 정신건강에서는 여성이, 여성에서는 정신건강이 독립된 주제로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못해왔다.

본 발표에서는 젠더와 여성 정신건강, 여성 삶의 전반에 걸쳐 생애주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정신건강 문제와 그 위험요소를 살펴보고 더불어 Covid-19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가 여성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여성 돌봄 노동의 증가, 일자리 영역에서 여성의 불리함, 여성 대상 폭력의 증가 등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방안과 이를 위한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6년 정기 역학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문제 유병률을 보면, 여성의 경우 불안장애가 11.7%(남성 6.7%)로 가장 높았다. 세부 질환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기분장애 중 주요우울장애가 6.9%로 가장 높았다. 특히 우울증은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위험도가 높다.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임신, 폐경, 노화 등 생물학적 요인과 학업, 취업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높은 이혼율, 일인 가구 증가, 질병, 빈곤 등 여성이 처하는 사회적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젠더 차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요소는 폭력 경험과 돌봄 및 가사 책임, 노년기 일인 가구, 낮은 임금, 실업 등 경제적 불리함과 빈곤, 낮은 사회적 지위 등이다. 우리나라 2020년 통계청 보고에서 여성 일인가구의 증가, 남성보다 오랜 시간의 가사노동,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 근로, 여성 기초수급자 증가, 성폭력, 가정폭력의 증가, 특히 불법촬영 피해자의 폭발적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정신건강의 위험요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불안, 우울, 자해 및 자살충동, 알코올 의존증, 약물 의존증,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적극적인 폭력 예방 정책과 함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정신건강은 코비드-19로 인한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2020년 5월 UN 정책 보고 '코비드-19와 정신건강을 위한 행동의 요구'에서 여성은 특별한 관심을 주어야 할 인구 집단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남성 34%에 비해 여성의 66%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인도의 예를 보고하였다. 또한 향후 6개월간 코비드-19로 인한 제재가 진행되면 전세계적으로 3천백만 건의 여성을 향한 폭력이 추

가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비드-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평소보다 4, 5배 불안과 우울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우울, 불안이 남성보다 높으며 이런 현상은 9월에 다시 증가 추세로 들어섰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아의 가정 양육이 코비드-19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직장맘의 스트레스 고위험군이 45%였고 특히 20대에서 40대 직장맘은 절반 이상이 고위험군이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여성 청년에서의 자살의 급격한 증가이다. 자살예방센터에 의하면, 1~6월 한국의 여성 자살은 192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1% 증가하였고 지난 6월에는 13.6% 증가했다. 자살동향 데이터가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지지 단절, 실직 등의 충격이 자살 위기군에 있던 여성에게 기폭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현상이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8월 여성 자살 수는 지난해에 비해 40.3% 늘었는데 30대 이하 여성으로 범위를 좁히면 증가율이 74%에 이른다, 실업자수가 늘고 비정규직에 여성 비중이 높은 점을 원인과 연관시키고 있다.

따라서 팬데믹으로 인해 여성정신건강에 대한 위험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경험 후” 대규모 재난에서 여성은 가족 책임감, 여성의 높은 빈곤율, 우울과 불안 장애의 더 많은 위험요인 그리고 성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취약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특히 정신건강 위험에 놓이게 되므로 반드시 젠더가 재난훈련과 행동계획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코비드-19 상황에서 정신건강을 위해 UN에서는 세가지 행동 방안을 추천하고 있다

첫째, 국가차원에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사회 전체에 걸친 접근, 둘째, 정신건강과 심리 사회적 응급지원이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는 것, 셋째, 코비드-19 로부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기구나 국가차원에서의 노력 외에도 민간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 심리방역에서 강조하는 확진자와 주위사람들과 관련해 낙인과 혐오, 소외를 조장하지 않는 성숙한 문화, 건강불평등 심화를 막기위한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소외를 막기 위해 기술 기반 비대면 접촉 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 시킨 정서적 접촉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 해소, 여성에 대한 젠더 관점에서의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VI. 토론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여성 안보, 그리고 돌봄

박 기 남

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PARK Kinam

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
Former Director, Gangwondo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박기남은 1962년 3월 30일 서울 출생으로,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1994년부터 강원도 춘천에 정착해 살면서 여성학 연구자, 페모크라트, 여성단체 대표와 회원으로서 GO와 NGO를 넘나들면서 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을 위해 일해 왔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문제와 성주류화 정책, 지역 여성운동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실천해왔다. 공저로 《일터에서 평등을 묻다》(2014), 《노인 돌봄》(2011), 《일·가족·젠더》(2009) 등이 있다.

Born in Seoul on March 30, 1962, Kinam Park served as the director of Korea Women's Institute and Korea Foundation for Women. Since 1994, she has settled in Chuncheon, Gangwon-do, and has worked as a gender studies' researcher, femocrat, and representative and member of women's organizations, crossing GO and NGO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gender equality for women in the region. In particular, she has studied and practiced gender inequality issues in the labor market,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and regional women's movements. Her co-authors include 《Asking for Equality at Work》(2014), 《Caring for the Elderly》(2011), and 《Gender at Work & Family》(2009).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여성 안보, 그리고 돌봄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는 의도치 않게 사회의 숨겨진 단면을 드러냈다. 흔히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연령, 계급, 젠더, 인종, 국적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감염병 전파와 확산의 구조 및 메커니즘이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 국가 안보는 군사력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질 좋은 돌봄 제공을 통해 담보됨을 깨달았다. 무급, 유급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겪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맞벌이 시대에는 맞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봄을 재분배해야 한다. 돌봄은 더 이상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가야 사회가 지속가능하다. 성별 분업의 해체와 무급 돌봄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서는 우선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의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제도의 수급 단위가 가구주에서 개인으로, 수급의 자격조건이 시민-노동자-돌봄자 모델로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돌봄 노동을 '필수 노동'으로서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돌봄노동자는 보건의료노동자, 택배노동자 등과 같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필수노동을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노동자(The Essentials)이다. 공장은 멈출 수 있지만, 돌봄은 생존에 필수적인 노동이기에 중단할 수 없다. 하지만 여성 비율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는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불안정노동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하는 소득상실 위험에도 처해 있다. 돌봄 노동이 필수노동이라면 이에 준하는 직무평가에 기반해 적절한 처우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 정의 실현을 위해 돌봄 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는 협의 과정에 당사자인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통해 돌봄 노동이 생산 노동만큼이나 우리 삶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공식, 비공식 돌봄 구분을 해체하고 돌봄을 전면적으로 가시적 영역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해 모두 함께 책임지는 '함께 돌봄'이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

넷째, 돌봄 정의가 인간 중심을 넘어서 생태 정의 실천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통해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했다. 인간, 민족, 국가, 자연, 동물과 식물 등 지구 안의 모든 존재들이 상호의존적임을 깨달았다. 코로나 시대는 인간 중심이 아닌 포스트 휴먼의 젠더 감수성 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 여성들이 이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성평등과 생태 정의를 실현해 나가자.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VI. 토론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돌봄 문제와 연대의 중요성

이 승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 승 아 LEE Seung-a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Council Member of Health Welfare & Security Committe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이승아 의원은 1975년 대한민국 제주 출신으로 2018년 전국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구에서 선출된 최연소, 최초 지역구, 초대 첫 여성의원으로 3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전반기 2년은 문화관광체육회, 후반기는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의회 연구모임 '제주체육진흥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입법 활동으로는 도시문화, 자연의 보존, 어린이와 노약자, 스포츠인권 보호 등의 조례 제정을 하였다. 그 외 대외교섭활동으로 4.3수형희생자 명예회복, 남북평화씨름대회 제주개최 제안, 탐라역사문화회복 촉구 등 제주의 지역현안 해결에도 활동하였다.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전국우수조례우수상', '전국 우수의정대상' 등을 수상 하였다. 초선이지만 젊고 힘차게, 여성으로서 세밀하게 지역과 제주의 현안을 살피는 당당한 여성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Lee Seung-a as a native of Jeju, South Korea born in 1975, has three titles: First of all, She is the youngest member of the Council, Second Oradong, the first district elected member and lastly, the first female member of the council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istrict. She served on the Culture, Tourism and Sports Committee in her first two year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Currently, she is a member of the Welfare and Safety Committee for her remaining two years in office. She is also a representative of 「the Jeju Sports Promotion Forum」, a research group within council.

Major legislative activities are the enactment of ordinances, such as urban culture, conservation of nature, protection of children, the elderly, and sports human rights. Other activities: included the restoration of honor for the victims convicted of the 4·3 incident, and the proposal to hold the South-North Peace Ssireum Competition in Jeju and the call for the restoration of Tamna history and culture. In recognition of her achievements, she won a prize for excellence in the 「National Excellence Ordinance」, and the 「National Excellence Council Work Award」. Although she is a first-term member of the council, she is making her utmost effort as a young and powerful woman who takes care of pending issues in the region and Jeju Island.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돌봄 문제와 연대의 중요성

코로나19 위기가 '상호연결성'과 '의존성'을 부각시킴

지난 1월 이후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코로나19는 사람들의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불안감과 긴장으로 일상의 영역은 물론 심리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이다. 코로나의 장기화는 '코로나 블루'라는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되었고, 무엇보다 돌봄의 문제는 감염병 상황 속에서도 쉽 없이 필요한 돌봄의 '상호연결성'과 '의존성'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위기는 여성의 '돌봄 부담 가중'과 '교육 격차' 문제 야기

시대가 변하면서 '돌봄'의 방식과 양상은 변화하고 있지만, 돌봄 영역은 여전히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여성의 심리적 어려움은 돌봄 공백의 연결성과 그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 특히 감염위험 확산으로 공적 교육과 돌봄 기능이 일시적으로 유예되면서 공교육과 돌봄 문제, 안전과 학습권의 딜레마,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 이는 소통과 관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포함하여 새로운 돌봄에 대한 의제 전환이 절실했다.

무엇보다 포기할 수 없는 '돌봄', 포기해서도 안 되는 '돌봄과 소통의 연결성'

여성의 사적 돌봄노동은 어린 자녀 돌봄, 노인 및 장애인 돌봄 등 주로 가정에서 여성들이 맡아왔다. 또는 다른 여성들이 '일' 혹은 '노동'이라는 댓가로 여성의 자리를 매워주는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무급 돌봄이나 저임금 돌봄노동에 대한 평가는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기존의 체제에서 변혁적인 시각으로 돌봄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한 이유가 여기 있다. 공존과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비대면' 시대 상황 이어도 '대면'의 돌봄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이를 위한 물질·인적 자원의 연결과 지원 제도 필요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지역 단위'에서 촘촘한 통합 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스크를 쓰고 '대화 금지', '토론 금지', '만남 금지'라기 보다는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강력한 지역 공동체를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돌봄을 나누며 극복해 나간 것이다. 제주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감염률이 낮았던 이유는 상호 연결성의 지역 공동체성이 강조된 효과도 컸다고 여긴다. 그러기에 시민들의 참

여와 그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통합체계로 짜는 것은 매우 필요해졌다.

코로나 팬데믹은 더 발전할 수 있는 돌봄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동안 경시되었던 ‘돌봄’에 대해 재평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조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호의존적이고 연결되어 있는 ‘돌봄’을 위해 제도적 실행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재난의 일상에서도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점들이 간과되지 않고 비약적 변화와 동시에 압도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 체계가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와 여성 돌봄 환경에 대해서도 인간 존재의 상호 연결성을 인정하고,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재조명되어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이다.

VI. 토론

Covid-19와 젠더 평등

황 영 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0
FOR PEACE & PROSPERITY

황 영 주

HOANG Young-ju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Professor,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황영주는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이다. 그의 주요 연구 관심사는 젠더와 (국제)정치, 정체성의 정치 등이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의 젠더주류화와 관련한 정책 담론을 연구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약 60여편의 논문과 저작을 발표하였다.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편집위원 및 한국정치학회 편집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Young-ju Hoang i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uth Korea. He holds a Ph D from the University of Hull(UK). He has published numerous in Korean and English on subject of feminist security studies and gendered identity of conflict including “Gendered militarisation as state of exception on the Korean Peninsula”(with Noel O’Sullivan) and “Korean Sources of Conflict Resolution”(with Roland Bleiker) in *Mediating Across difference*. He has also translated a range of key texts from English into Korean including J. Ann Tickner’s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Roland Bleiker’s *Divided Korea*.

Covid-19와 젠더 평등

구조적 폭력과 여성: 노출시키기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 희생자로서의 여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른바 구조적 폭력으로 젠더화된 현상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요한 갈통이 주장대로 구조적 폭력은 잘 보이지 않는 폭력을 체계적으로 노출시키며, 적극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고찰의 시작이 된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보건사회분야 노동자의 70%가 여성이다. 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환자의 돌봄 노동은 주로 “여성의료관련자” 몫이 될 경우가 많다. 그들은 때로 역병과 싸우는 전사로 추앙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노동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감추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을 받을 때,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은 주로 여성들에게 부과된다. 당연히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한 “꼬박꼬박” 끼니의 책임자로 상정된다. 즉, 양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은, 역병의 시대에 더욱 강조되면서 어머니(와 아내의)의무와 책임으로 재차 강조된다. 학교와 회사는 소독과 방역을 강조하지만, 일선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이들은 (남성)관리자가 아닌, 비정규직의 나이 많은 청소부 “이모님” 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동네 식당은 비정규직 “이모님”에게 (미안해 하면서도) 그만 나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는 젠더화된 사회구조의 민낯(구조적 폭력)을 그대로 드러낸다. 물론, 아내와 파트너 때리기와 같은 직접적 폭력도 함께 말이다.

참여자와 극복자로서의 여성: 의미의 부여

코로나 상황이 여성들이 갖는 어려운 모습만을 노출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당연히 여겨왔던 여성의 공헌에 대하여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한번 더 되짚어 보게 되는 기회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남성)대통령보다도 더 자주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질병관리청 여성 책임자에 찬사를 마다 하지 않는다. 역병과 잘 싸우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책임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더 이상 구별하는 짓은 무의미하게 된다. 재택근무를 하는 어머니와 함께 컴퓨터 앞에서 비대면 수업을 듣는 딸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식사 준비와 빨래 만을 하는 이가 아니라는 점을 어렵사리 알게 된다. 어머니의 재택 근무는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의도하지 않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반대로, 어머니가 행하는 가사 노동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 성찰적인 고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것도 눈물을 고이게 하는 것은, 지난 봄 그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하여 갓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어린 여성 간호사들 상기된 얼굴로 대구로 달려가는 모습이였다. 나는 이들에게 말그대로 (다른 말이 필요없이) 큰 감동을 받았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요컨대, 코로나는 여성의 기여를 확인하고 각인하는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여성 안보 회복과 힘 갖추기(empowerment)

악녀와 천사로 구분되는 이분법을 경계하면서, (여성들에게 가장 나쁘게 작동하는) 군사화된(militarised) 담론(예를 들어 “역병과 싸우는 전사”라는 레토릭)을 경계하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코로나의 국면이 여성들과 여성의 일상과 안위(security)에 미칠 영향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코로나 국면에서 사회 경제적 모순은 약한 자로서의 여성에게 구조화된(structuralized) 폭력을 행사하지만, 참여자와 극복자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할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준다. 즉, 코로나는 희생자(the victimized)로서의 여성과 함께 주체화(the subjectified)된 여성들을 상상할 기회를 (함께) 생겨나게 만들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코로나 때문에 밝혀지는 젠더화된 사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성들이 어떤 활약과 공헌하고 있는지 알리고 선전해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 되고 만다. 더군다나 천문학적 군사비로 운영되는 첨단 무기와 군대가 이 작은 바이러스앞에서는 말 그대로 무위(無爲)라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함께 알려가면서, 실제로 전지구적 안위(global security)가 가정과 병원과 보건의소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의 작은 손가락(nimble finger)에서 연유됨을 보여주는 것은 그 상상만으로도 신이 나는 이른바 “여성의 힘 갖추기(empowerment of women)”가 될 것이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